

2020 한국디자인학회 봄 학술대회 의견수렴 설문결과 분석 리포트



한국디자인학회

1-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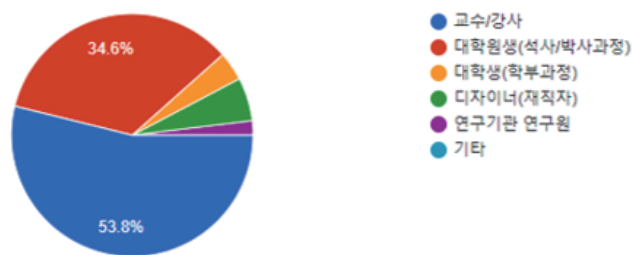
2020 한국디자인학회 봄 학술대회 평가
분석내용을 토대로 다음 학술대회의 방향성 결정

1-2. 조사 대상

2020 한국디자인학회 봄 학술대회 참가자
(설문조사 참여인원 총 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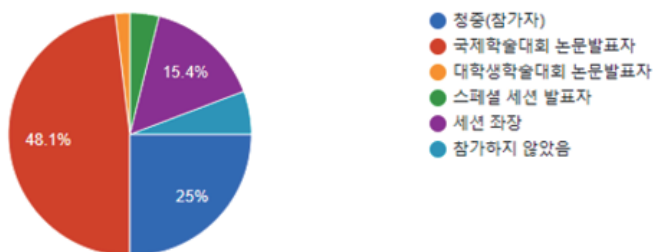
2-2. 설문 분석 결과

Q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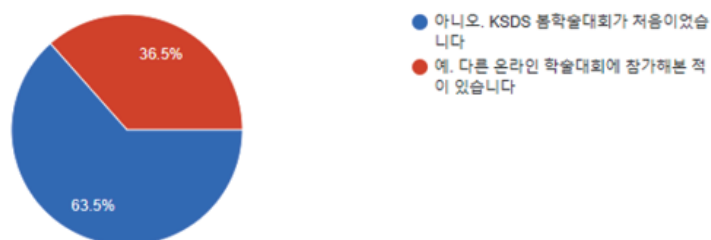
교수/강사' 28명, '대학원생(석사/박사과정)' 18명, '대학생(학부과정)' 2명
'디자이너(재직자)' 3명, '연구기관 연구원' 1명, '기타' 0명으로 나타났다.

Q2. 이번 (2020 봄) 학술대회에서 어떻게 참여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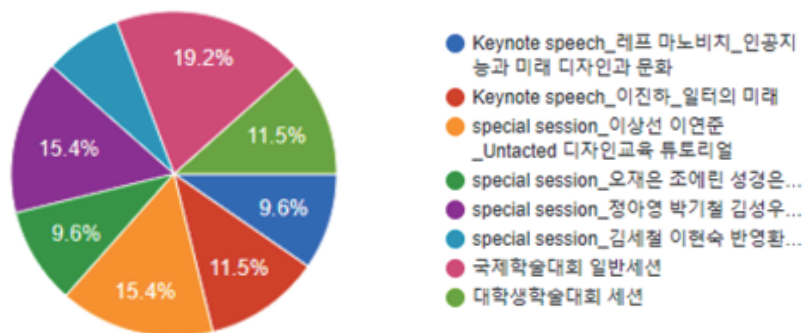
48.1%는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자'(25명)로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를 하였다.
25%는 '정중(참가자)'(13명), 15.4%는 '세션 좌장'(8명)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외에 참가하지 않았음'(3명), '스페셜 세션 발표자'(2명), '대학생학술대회
논문발표자'(1명)로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를 하였다.

Q3.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까?



63.5%(33명)은 KSDS 봄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경험하였고,
36.5%(19명)는 다른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가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4.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장 좋았던 발표/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Q5. 위 발표/세션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대에 적합한 디자인 방향
 코로나로 인해, 가상현실에서 포스트 잇을 붙이고 떼며 회의를 하는 것이 신선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주제와 헬스케어, 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각자 논문 투고자분들의 작성한 논문을 읽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들어서 좋은 디자인 영향을 받았다.

⋮
⋮

19.2% (10명)

국제학술대회 일반세션

15.4% (8명)

special session_정아영 박기철 김성우_Untacted 디자인교육(국내)
 special session_이상선 이연준_Untacted 디자인교육 튜토리얼

11.5% (6명)

대학생학술대회 세션, Keynote speech_이진하_일터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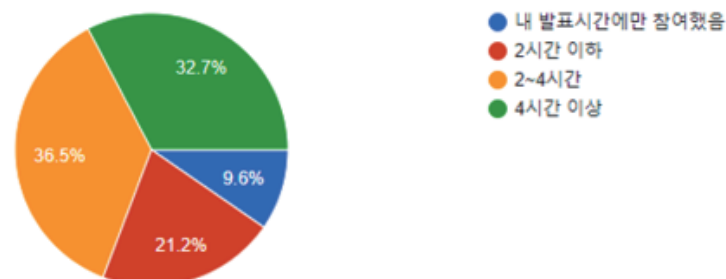
9.6% (5명)

special session_오재은 조에린 성경은 이상원_Untacted 디자인교육(국제)
 Keynote speech_레프 마노비치_인공지능과 미래 디자인과 문화

7.8%(4명)

special session_김세철 이현숙 반영환 김현준_Untacted 디자인연구

Q6. 학술대회 참여시간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36.5%(19명)의 응답자는 '2~4시간' 참여, 32.7%(17명)는 '4시간 이상',
 21.2%(11명)는 '2시간 이하', 9.6%(5명)은 '내 발표시간에만 참여했음'

국제학술대회 일반세션, 19.2% (10명)

-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 다양한 주제와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다.
- 각자 논문 투고자분들의 작성한 논문을 읽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들어서 좋은 디자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 생각보다 많은 참여로 집중도 있게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 세션은 집에서 간단히 관심있는 논문의 발표만 들을 수 있어 만족도가 더 컸던 것 같다.

‘ 다양한 주제의 논문 ’
‘ 다수의 청중 참여 ’
‘ 온라인 학술대회의 편리함 ’

special session_정아영 박기철 김성우_Untacted 디자인교육(국내)

special session_이상선 이연준_Untacted 디자인교육 튜토리얼, 15.4% (8명)

- 시의적절한 주제였습니다.
- 경험과 의견의 공유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원격 수업의 세부적인 실천 항목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
- 학회 주제와 잘 맞는 내용이었고, 발표 내용 및 준비, 진행 전반적으로 다 만족스러운 세션이었음.
- 교육에서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 상세한 설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다른 분들의 비대면 교육 경험 공유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관심있는 주제에 관하여 세션을 들어서 인상깊었습니다.

‘ 경험과 사례 공유 ’
‘ 다수의 청중 참여 ’
‘ 주제의 적합성 ’

대학생학술대회 세션, Keynote speech_이진하_일터의 미래 , 11.5% (6명)

- 최근 이슈와 유사하다.
- 코로나로 인해서 가상현실에서 포스트잇을 붙이고 떼며 회의를 하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 ARI 직장에서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지 볼 수 있어 새로웠습니다.
- 불확실한 미래의 디자인 직업의식과 직장에 대한 성과 목표가 확실해 졌습니다.
- 실무의 사례가 역시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아 듣기 좋았음

‘주제의 적합성’
‘경험과 사례 공유’

special session_오재은 조에린 성경은 이상원_Untacted 디자인교육(국제) Keynote speech_레프 마노비치_인공지능과 미래 디자인과 문화, 9.6% (5명)

- 트렌드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해외 사례의 심도있는 비교가 좋았다.
- 해외의 현 상황을 직시할 수 있었다.
- 미래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해주었습니다.
- 국제적인 큰 흐름과 이슈를 볼 수 있었다.
- 시대에 적합한 디자인 방향.

‘경험과 사례 공유’
‘디자인 트렌드 및 방향성’
‘주제의 적합성’

special session_김세철 이현숙 반영환 김현준_Untacted 디자인연구, 7.8% (4명)

-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분야 종사자가 발표에 참여한 것.
- 평소 관심 많았던 주제였습니다.
- 코로나 시대에 맞는 주제와 헬스케어, 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습니다.

‘주제의 적합성’

가장 좋았던 발표/세션의 선택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분석된다.

‘주제의 적합성’ ‘경험과 사례 공유’ ‘다수의 청중 참여’

이외의 소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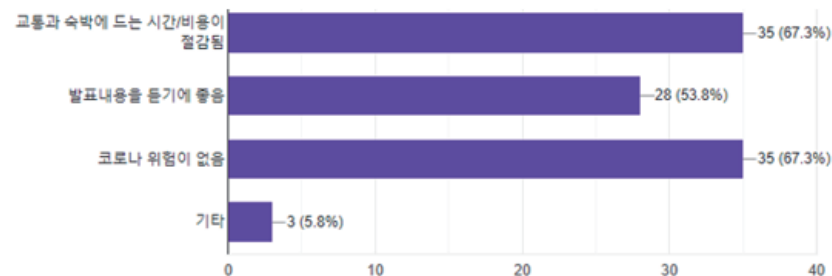
‘다양한 주제의 논문’

‘온라인 학술대회의 편리함’

‘평소 관심 주제’

‘디자인 트렌드 및 방향성’

Q7-1.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여서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교통과 숙박에 드는 시간/비용이 절감됨’ 과 ‘코로나 위험이 없음’의 응답이 각각 67.3%(35명)로 가장 높았고, 53.8%(28명)의 응답자는 ‘발표내용을 듣기에 좋음’ 기타는 5.8%(3명)으로 나타났다.

Q7-2. 온라인 학술대회의 장점으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진행되는 세션들을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편하게 잘 알 수 있었으며 쉽게 찾아갈 수 있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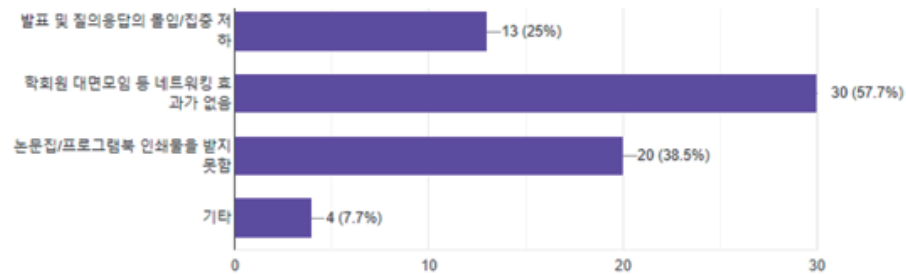
발표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현장보다 발표자 목소리가 더 잘 들려서 좋았다.

해외 연구자들의 발표나 참여가 많아진 점이 좋았다.

·
·
·

Q8-1.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여서 나뉘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학회원 대면모임 등 네트워킹 효과가 없음' 이 57.7%(30명)로 가장 높았고, 38.5%(20명)의 응답자는 '논문집/프로그램북 인쇄물을 받지 못함' 25%(13명)의 응답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의 몰입/집중 저하' 기타는 7.7%(4명)으로 나타났다.

Q8-2. 온라인 학술대회의 단점으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질의응답 인터랙션이 아무래도 제한되는 면이 있다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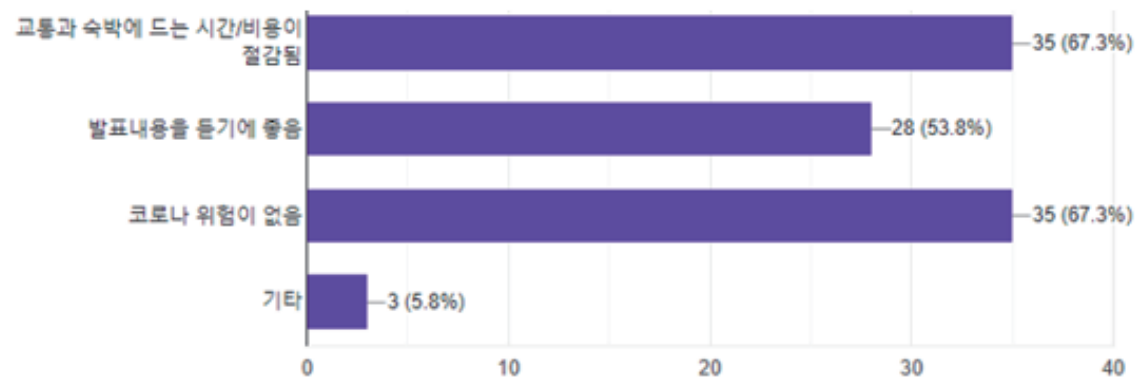
어느 방에 어떤 세션이 있는지 확인해서 들어가기는 했지만 시간이 됐을 때 안내사항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청중이 카메라를 꺼둔 상태여서, 발표자 입장에서는 혼자 떠드는 듯한 고립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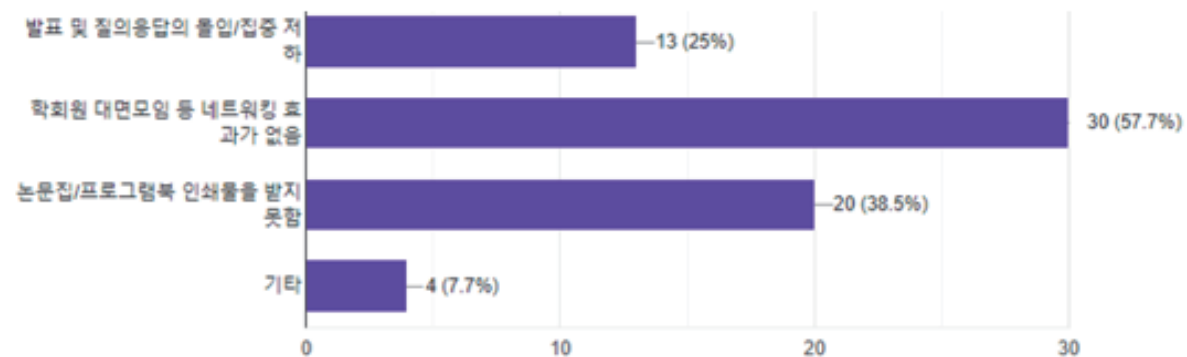
논문집/프로그램 등 인쇄물을 사전에 받아보고 싶습니다.

·
·
·

Q7-1.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여서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Q8-1.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여서 나빴던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여서 좋았다’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음

온라인 학술대회의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짐

Q7-2. 온라인 학술대회의 장점

- 발표자 입장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적 여유와 시간이 주어져 좋았습니다.
- 세션 찾아가기 편함, 클릭 한 번으로 여러 세션 방문 가능해서 너무 편했다.
- 기름기는 빠고 지식/정보 공유라는 학회의 원래 취지를 극대화
- 아무래도 영상으로 진행되니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 발표 내용의 전달이 명확하여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기에 좋았습니다.
- 중간 중간 자유롭게 질 수 있어 좋았고 언제든지 방에 참여 할 수 있다는게 좋았습니다.
- 발표 내용 및 학술대회의 주요 핵심 내용의 공유
- 발표 콘텐츠에 집중하기가 좋다.
- 발표 장표가 잘 보여서 좋았다.
- 실시간 데이터 쉐어 가능.
- 현장보다 발표자 목소리가 더 잘 들린다.
- 진행되는 세션들을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편하게 잘 알 수 있었고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

온라인 학술대회의 장점은 크게 3가지로 분석된다.

‘ 발표 내용의 전달성 ’ ‘ 세션 참가의 편리함 ’ ‘ 자유로움과 여유 ’

이외의 소수 의견

‘ COVID-19 관련 안전함 ’ ‘ 시간의 효율적 활용 ’

Q8-2. 온라인 학술대회의 단점

- 질의응답 인터랙션이 아무래도 제한되는 면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 질의응답이 너무 짧거나 없다.
- 대부분의 청중이 카메라를 꺼둔 상태여서, 발표자 입장에서는 혼자 떠드는 듯한 고립감.
- 세부적인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기가 힘들었습니다.
- 끝나도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뒤풀이가 어려움
- 오프라인 네트워킹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더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 논문집/프로그램등 인쇄물을 사전에 받아보고 싶습니다.
- 전체적인 집중도와 몰입도가 낮았습니다.
- 포스터나 전시 등의 발표도 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 추가금을 내더라도 논문집을 인쇄물로 받고 싶습니다.
- 발표자 위주의 진행으로 청중이 적는데, 이 점은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청중을 듣게 하면 좋겠다.
- 어느방에 어떤 세션이 있는지 확인해서 들어가기는 했지만 시간이 됐을 때 안내사항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온라인 학술대회의 단점은 크게 2가지로 분석된다.

‘ 질의응답 관련 인터랙션 시간 부족 ’ ‘ 청중의 참여 부족 ’

이외의 소수 의견

‘ 논문집 인쇄물 수령 희망 ’ ‘ 안내사항의 상세화 ’

Q9. 향후 온라인으로 학술대회가 다시 진행된다면 무엇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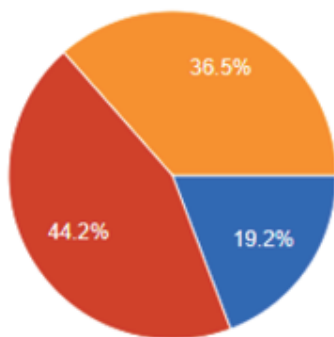
다양한 청중을 모집하고, 학술적 논의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발표가 중복되기 보다는 조금 늘려서 모든 세션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keynote speech 연사의 준비 상황에 대한 사전 검토

·
·
·

Q10. 다음 학술대회(2020 가을) 개최방식은 무엇이 좋겠습니까?



● 오프라인(개최지 수도권)
● 온라인
● 어느쪽이든 상관없음

- 44.2%(23명)의 응답자는 '온라인' 개최방식이 좋다고 나타났고,
36.5%(19명)의 응답자는 '어느쪽이든 상관없음'으로 나타났으며,
19.2%(10명)의 응답자는 '오프라인(개최지 수도권)'의 개최방식이 좋다고 나타났다.

Q9. 향후 온라인으로 학술대회가 다시 진행된다면 무엇에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청중을 모집하고, 학술적 논의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 학술대회 총 시간의 분할 및 조정
- 더 다양한 방법과 더 많은 홍보
-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는 서로간의 정보 소통.
- 세션ROOM의 링크가 많아서 복잡하다.
- 현장스케치를 좀 휴식시간에 보여주면 현장감있고 좋을거 같습니다.
- 발표시간이 중복되기 보다는 학술대회 시간을 조금 늘려서 모든 세션을 들을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 학술대회 참여자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온오프라인 믹스 형태의 학회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질의 응답 세션부분을 더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 여러 플랫폼을 검토 후 학술대회와 맞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온라인 학술대회의 유의할 점은 크게 3가지로 분석된다.

‘학술대회 시간 및 시간표 배치’ ‘온,오프라인의 동시 활용방안’ ‘참여자 간 네트워크 형성 필요’

이외의 소수 의견

‘다양한 청중의 필요성’ ‘홍보 활성화’

가장 좋았던 발표/세션의 선택 이유는

‘주제의 적합성’, ‘경험과 사례 공유’, ‘다수의 청중 참여’

온라인 학술대회의 장점은

‘발표 내용의 전달성’, ‘세션 참가의 편리함’, ‘자유로움과 여유’

온라인 학술대회의 단점은

‘질의응답 관련 인터랙션 시간 부족’, ‘청중의 참여 부족’

향후 온라인 학술대회의 유의할 점은

‘학술대회 시간 및 시간표 배치’, ‘온,오프라인의 동시 활용방안’, ‘참여자 간 네트워크 형성 필요’

분석 결과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가능했다.

'운영'

응답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질의응답 관련 시간 부족과 동시간에 겹치는
타임테이블에 대한 이슈가 많았다.
또한 이후 온오프라인의 동시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참가자도 많았다.

'참여'

발표자 위주의 진행으로 청중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질의응답 순서에 청중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소통하여 참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활용'

오프라인 학술대회 보다 발표 내용 및 콘텐츠에
집중하기 쉬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러한 온라인만의 장점들을 활용하여,
이후 온-오프라인이나 오프라인 학술대회에도
반영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합니다.



한국디자인학회